"광주에 차세대 한류문화 전략적 거점 구축"

'광주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 조성' 국회 토론회

2500억 투입…지식산업센터 · 인재양성 캠퍼스 등 조성 국정과제 문화도시 실현・수도권 집중 콘텐츠산업 분산

텐츠 테크타운'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내야 축한다.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과 추진 전략을 공유하고, 지역 산업 생태 계 구축이 기대된다. 계를 활성화할 구체적 방안이 논의됐다.

업'은 25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타운의 미래비전' 발제를 통해 "최근 AI기 광주에 문화콘텐츠 중심지를 구축하는 사 술이 콘텐츠 산업과 결합해 콘텐츠 창작 업이다. 구체적으로 △복합지식산업센터

광주가 차세대 한류문화의 전략적 핵심 장 펀드 조성 △기업육성 프로그램 운영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K-문화콘 등 인재·기업·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을 구

특히 이 사업은 이재명 정부 국정(지 광주시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아시 역) 과제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 아시 아문화중심도시 광주'를 완성하기 위한 아 콘텐츠 허브 조성' 실현의 핵심사업으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 조성 국회토론 로, 수도권 집중 산업시설을 분산하고 광 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진욱 국 주를 한류문화 전략 거점으로 만드는 데 회의원(광주 동남갑)이 주최하고, 광주시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국립아시아문 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공동 주관 화전당, 광주실감콘텐츠큐브, 국가AI데이 터센터 등 지역 내 기반시설과 연계해 제 토론회에서는 테크타운 조성 사업의 필요 작・실증・사업화까지 아우르는 문화생태

토론회에서 백창기 광주정보문화산업 '광주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 조성사 진흥원 단장은 '광주 K-문화콘텐츠 테크 건립 △인재양성 캠퍼스 운영 △콘텐츠 성 준히 '기술중심 콘텐츠 융합 실증도시'를 확장성과 가능성을 제시했다.



광주시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를 완성하기 위한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 조성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이 주최하고, 광주시 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공동 주관했다.

구축해 온 광주가 K-콘텐츠 테크타운과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은규㈜상화 부사장은 '기술융합을 통 한 콘텐츠 산업의 미래' 발제에서 자사 개 방식이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꾸 발 사례를 소개하며 콘텐츠산업의 무한한

발표에서 "광주는 AI 콘텐츠 전문인력을 양성할 기반이 이미 마련돼 있다"며 "테크 타운 조성으로 지역 산업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이 불어넣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욱 국회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

송재원㈜텍스터스튜디오 소장은 'AI시 해 모인 지혜를 바탕으로 K-문화콘텐츠 명 정부가 추진하는 '창의적 문화국가 실 함께 'AI콘텐츠 허브 도시'로 도약할 수 대의 콘텐츠산업과 창작환경의 변화' 주제 테크타운 조성 사업이 '아시아문화중심도 현'을 광주가 선도하며 미래형 아시아 문 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의 목표 를 달성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 록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2025년 11월 18일 화요일

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이재

화 중심지로 도약하길 바란다"며 "토론회 에서 논의된 제언을 바탕으로 테크타운 조 성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 조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연구원, 생활 정책 강화 '시민 작은연구' 등 8건 선정

광주연구원은 최근 생활기반 정책연 구 강화를 위해 추진한 '시민 작은연구' 지원사업과 석·박사 학위논문을 정책연 구에 활용하는 '신진 연구자 광주정책연 구' 지원사업의 우수 연구 결과를 발표

연구원은 올해 청년, 이민자, 미술, 도 시공간 등 광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 한 주제로 두 사업을 운영했다.

이 가운데 '시민 작은연구' 5건, '신진 연구자 광주정책연구' 3건 등 총 8건의 연 구과제가 최종 선정돼 진행됐다.

'시민 작은연구' 분야 우수연구로는 광 주시 청년 공유공간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이, '신진 연구자 광주정책연구' 분야 우수연구로는 시민 수요 기반의 광주형 n 분 도시 생활서비스시설 배치 전략이 각 각 선정됐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메타버스 콘텐츠 등 문화기술 미래 엿본다

20~21일 광주실감콘텐츠큐브서 'GICON WEEK' 미래채움 사업 등 성과 전시…세미나·체험행사도

(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성된다. (GICON)은 광주 문화기술 산업의 성

산업이 이룬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기 기대된다. 업, 학교,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포럼

이번 행사는 광주 시민과 지역 산업 과를 공유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중사자들에게 미래 기술 트렌드를 제공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참가 대학생들 '2025 GICON WEEK'를 오는 20일부 하는 다양한 세미나와 전시 체험을 마 은 진흥원 보유 시설 투어(VX스튜디 터 21일까지 이틀간 광주실감콘텐츠큐 면했다. 주요 세미나로는 △'2025 광주 오 등) 및 부대행시를 체험할 수 있다. 브(GCC) 및 GCC센터 일대에서 개최 디지털 혁신포럼' △인공지능(AI) 활 이경주 원장은 "올해 GICON WEEK 용 콘텐츠 제작 세미나 AXR 제작 기 는 광주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인 기술 올해로 2회째를 맞은 'GICON WEEK 법 및 ICVFX 제작기법을 활용한 버추 (TECH) 과 콘텐츠(Contents) 가 융합 '는 'TECH for Culture & Innovation 얼 프로덕션 세미나 등이 열려, ICT 및 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특히 RISE 사 ', '기술로 성장하는 광주의 미래 산업' 문화콘텐츠 분야 지역 기업 및 학교 관 업 연계를 통해 지역 대학과의 산학 협 을 주제로 한 해 동안 광주의 문화기술 계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력을 강화하고, 광주형 ICT 및 문화콘

또한 GCC 일대에서 진행되는 전시· 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미나, 문화기술전시·체험행사로구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메타버스 콘텐

츠 제작・실증 지원사업 성과 전시 △소 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 홍보 전시 △ 오감만족 PLAY ZONE 운영 △투자진 흥지구 팝업컴퍼니 성과공유회 및 기업 투자 상담회 등 지역 스타트업과 기업 의 혁신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체험할

텐츠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더욱 가속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박만 광주은행 노동조합위원장 연임

"지방은행 정체성 확립·독자경영 체제 강화"

박만 광주은행 노동조합위원장(사진)

이 연임에 성공했다. 17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제21대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 박만

위원장이 당선됐다. 제20대 노조위원장이었던 그는 이번 합이 되겠다. 조합원 선거에서 54.1%(519표)의 득표율로 연 모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조직문화 임에 성공했으며, 홍도현·정이연 부위원 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장, 백유진 사무국장과 함께 내년 1월부 터 3년간 노동조합을 이끌게 된다.

확대 △지주사명 변경을 통한 계열사 통 합 이미지 제고 △출산 장려를 위한 남성 직원 육아휴직 활성화 및 보육수당 지급 로 조합원들의 신망을 받고 있으며, 지난 △과당경쟁 완회를 위한 KPI 절대평가도 2023년부터 노동조합위원장을 맡아 조 입 등을 제시했다.

박만 노조위원장은 "광주은행이 지방 왔다. 은행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독자경



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노동조합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조합원 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조

한편, 박 위원장은 2006년 광주은행 입

행 후 하남공단지점, 무안지점, 남광주지 주요 공약으로는 △지역인재 채용 대폭 점, 기관영업부 등 주요 영업점과 부서를 거치며 실무 경험을 쌓았다.

현장과 본부를 두루 경험한 조직인으 합원 권익 보호와 조직문화 개선에 힘써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